

세계경제포럼 아시아 원탁회의 참가자 초청 오찬말씀

호세 마리아 피게레스 대표님,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오신 정계·기업계·언론계·학계 대표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세계 경제에 커다란 기여를 해온 WEF(World Economic Forum) 아
시아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세계 경제에 크게 기여해 왔던 업적과 마찬가지로 이번 서울대회에서
도 여러분의 활발한 논의가 우리 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과 또 평화·번영에 큰
기여를 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어제 여러분의 회의장 주변에서 시위가 있었습니다. 아마 대개 알고 계실 것입
니다. 그분들이 지적하는 대로 세계화의 과정에서 빈부격차가 아직 해소되지 않
고 있고, 또 세계화의 진전이 경우에 따라서 잘 통제되지 않았을 때 일부 지역에
있어서 경제적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불안이 있는 점은 저희도 잘 이해를 하
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세계화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불
가능하고, 우리는 이와 같은 부작용을 극복하고 시정해 가면서 결국 세계화의 길

로 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인류 사회의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우리 국민들은 세계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분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또한 중단 없이 개방적인 경제체제와 자유로운 교류·협력을 통해서 세계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를 생각하면, 분단과 북핵문제를 먼저 머리에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장기적으로 이 문제가 매우 안정적이고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되어 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한국·미국·일본을 한 묶음으로 하고, 또 북한과 중국·러시아를 반대편으로 해서 불신과 경계의 질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여섯 나라 사이에서 활발한 경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협력의 질서는 점점 더 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두 개의 질서가 나란히 존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전체적으로 이 6자간의 협력과 경제적인 의존관계가 심화되어 나가는 질서가 더욱 더 두터워지고, 불신과 경계의 질서는 점차 희석되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세계 질서의 커다란 흐름이기 때문에 누가 흐름을 되돌리려고 한다고 해서 쉽게 되돌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그러나 이와 같은 흐름이 더욱더 순조롭게 또 빠르게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나라들이 함께 협력하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역시 함께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은 지금 계속해서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건은, 오늘부터 휴전선에 존재하고 있는 상호간의 선전물들을 제거하고 선전활동을 중지하게 됐고, 서해상에서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호간에 협력하는 여러 가지의 일들, 상호교신이라든지 상호

협력의 절차들이 시험적으로 실천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긴장을 해소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신뢰를 증진해 가는 노력이 동북아시아,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마침내 정착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상호간에 교류와 협력, 그리고 공동의 번영을 위해서 논의해 가는 것도 이와 같은 평화를 구축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안정된 토대는 우리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기초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 한국은 민주주의와 다양성의 질서를 튼튼히 다지고 그 위에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구축하고,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서 우리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과거 우리가 걸어왔던 시대의 제도와 생각을 그대로 지켜 가고자 하는 사람들과 아주 빠른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 사이에 지금도 지속적인 충돌과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 우리 한국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해 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힘차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역동적인 한국' 이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표현합니다.

이번 여러분의 회의가 아시아에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과 지혜를 함께 모으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도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한국의 입장을 잠시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 한국, 항상 잊지 마시고, 관심 가지고 주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